



재림을 향한 정렬 외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년 5월 15일

교황의 방문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한 교황은 카톨릭 교회와 유대 민족에 대해 여러 번 긍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 민족과의 화해에 대한 헌신,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입장, 반 유대주의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슬람 셰이크 알 타미미가 이스라엘을 통렬히 비난하자 반감을 표하며 퇴장한 것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세속주의 이스라엘 언론들은 유대교 극정통파 랍비들과 힘을 합해 더 이상의 발언이 없었던 것에 대해 교황을 혹독히 비난했습니다. 이번 교황의 방문으로 얻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주류 이스라엘인들이 그러한 비판에 맞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재림을 향한 정렬

오늘날 전세계 메시아의 몸 가운데에는 옳은 “정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우리 모두 영, 혼, 육에 있어 정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슈아의 재림에 줄이 맞춰져야 합니다. 정렬된다는 것은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림이 실체가 되기 전에 일치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 마 17:11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마 24:14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 계 19:7

그리스도의 몸이 재림에 예비되려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슈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께서는 그저 하나의 지리적 위치를 향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게로 오십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 마 23:39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도성입니다. 예슈아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시기에 친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슈아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신을 영접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삼하 7:12, 16 □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에게 그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 장은 사무엘 하 7 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들에 대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적 헌신을 보이십니다.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메시아닉 지체들과의 옳은 연합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메시아닉 지체들이 전세계 교회 및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옳게 정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몇몇 지체들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콜투올(Call2All)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이라크,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온 몇몇 아랍 크리스천 형제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지원하려 합니다. 저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들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라짱거 추기경 (교황 베네딕토 16 세)가 ‘제 2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향하여’에 속한 메시아닉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말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림에 훨씬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언약적 충정이 옳은 정렬의 기준입니다. 언약이 정렬의 기준선을 제공합니다. 저는 예수아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언약적 태도를 갖길 원합니다. 저는 오직 한 여인, 제 아내와만 결혼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 언약으로 저와 다른 모든 여인들과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 직접적 언약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사도적이고 예언적이고 언약적이고, 은사주의적이며 부흥과 회복을 사모하는 이들과 자연스레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보면 그들은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 곳이 저희가 속한 한 “줄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나 랍비들과 연결되는 데에 만족해선 안됩니다.

(1980년대 베틀와 제가 초대 목회자였던) 메릴랜드 주의 엘 샨다이 공동체를 이끄는 현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예수아 중심으로 히브리어를 쓰고, 사도적 생각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닉 유대인 남은 자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법적 권위가 저희에겐 없지만, 저희와의 그러한 정렬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에도, 레위 족속과의 언약에도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초반 장들에서 요셉 (예수아의 육신의 부친)이 다윗의 후손이며 세례 요한이 아론의 후손이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요 요한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재림 이전에 예루살렘에는 1세기와 같이 예수아를 믿는 아론의 후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 6:7).

예루살렘의 저희 공동체에는 아론이나 레위의 후손들이 10여명 있습니다. 매주 저는 그 분들로 손을 들어 회중들을 아론의 축복 (민 6:24-26)으로 축복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아랍 전도자들과 만났을 때, 아론의 후손인 저희 팀원 하나가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그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방언으로 찬양했습니다).

전세계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찬양, 예언 가운데 영적 제사장으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요한복음 17장 예수아의 대제사장적 중보를 따라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시듯 몸이 하나되도록 기도합니다.